뱀과의 동거를 찬양 고무하는 아첨꾼

(살전2:1~12)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뱀과의 동거를 찬양 고무하는 아첨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뱀과의 동거를 찬양 고무하는 아첨꾼'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옛날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숲속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에게 뱃속에 뱀이 잉태되는 일이 생겨서 난리가 났었다하는 그런 대략적인 요지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돌아가신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서울 변두리 모래내에서 살았으니까, 숲속이나 산속이나 들판을 거닐고 다니다 보면 냇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데서나 냇물에서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뱀 알이 물속을 떠돌아서 흘러 가다가 그게 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몸 안에서 알이 부화해 가지고 뱀이 몸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그렇게 물이 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졸졸 흐른다고, 입 들이대고 마시거나 그러지 말라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생상태도 안 좋고 그럴 때에, 그것이 염려가 돼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알이 몸에 들어와 부화가 돼가지고 몸속에서 마치 엄마가 애기를 뱃속에 갖는 것처럼, 그렇게 뱀을 갖고 살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화 같은 것들 SF영화, 가끔 보면 에이리언이 몸속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가, 사람 살 가죽을 뚫고 나오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뱀과의 동거!
누가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뱀과의 동거가,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정도의 동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나 봐요.
이 뱀과의 동거는, 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똬리를 틀고 좌정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느냐?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뱀과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오류가 인류역사 속에 범해졌고, 지금도 범해지고 있습니다.
격려, 위로, 용기를 주는 어떤 고무적인 말들, 격언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칠전팔기의 정신을 기리고, 좌절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수많은 격언들, 희망의 메시지가 다, 결과적으로는 뱀과의 동거를 찬양 고무하는, 아첨이 본의 아니게 되어버리는 놀라운 보편적인 스케일의 오류가 인류역사 속에서 자행되었고, 지금도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하며 속입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등지면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비어 있는 마음 안으로 무엇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들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끌어들이는 이유는 빈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행복하려고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보자! 사업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업은 내 마음으로 끌어들일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마음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내 마음으로 끌어들일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럼 내 사업인데 내 사업이 어디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들어 있는 게 사업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안에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향하여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만 지시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사업이고, 진짜 자식이고, 진짜 내가 쓸 돈이고, 진짜 내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건 진짜를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마음 안에 자식을 끌어들였다,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식과 실제로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밖에 있는 자식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자식을 끌어들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해 가면서,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저렇게 길러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자 하시는 방식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내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끌어들인 자식을 누가 자꾸 이렇게 키우라, 저렇게 키우라 지시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실제 자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미테이션 자식을 끌어들이면서, 사실 자식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림자뿐이고, 그 자식이라는 그림자 뒤에 실제로 무엇을 끌어들였냐 하면, 마귀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끌어들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슬픈 이유가, 마귀가 우리 귓속에 속삭여준 선악의 기준 때문에 슬프고, 기쁜 이유도 속아서 기쁜 거예요, 마귀의 기준 때문에, 마귀가 가르쳐준 이 세상의 기준.
돈 없으면 인생을 실패한 것이다, 이건 마귀의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돈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사도바울도 돈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서신마다 이 돈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비를 너희들한테서는 안 받았다.

오늘도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한테서는 돈을 전혀 안 받았다'
이상한 거지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빌립보에선 받았어요. 참 이상한 얘기에요, 이 얘기가.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에 선악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자식을 안에 들이고 있는데, 자식 문제가 안 돼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자손들이 다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뱀과의 동거를 더욱더 거세게 밀어붙이는, 더욱더 뱀과의 동거에 힘을 실어주는, 아첨꾼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때문에 고민인데, 옆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오셔 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사업이 잘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 사업이 안 되면서 걱정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밀어 넣는 아첨꾼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런 유의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아첨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첨이 돼 버립니다.
참~! 이게 무서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줄 모르고 다들 날 뛰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랍시고 해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뱀과의 동거를 찬양하고 고무하면서, 영원히 뱀의 세계로 끌려들어가,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고 격려의 메시지고, 격언이다 명언이다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교회에서도 고린도교회와 비슷하게, 교회 안에 고린도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선민으로서의 증거가 다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다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를 둘러싼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과 그 빌립보지역의 이방인들이 합심해서 박해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피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서도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조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설득이 된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베뢰아로 나갑니다.
근데 베뢰아로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 같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과 같으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에서 고린도처럼 관행으로 여겨졌던 순회교사들과 순회철학자들의 강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행하던 순회철학자들 순회교사들의 강연이 많은 폐단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관행이 깨어지지 않고 이러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행은 뭐냐, 결국은 나름대로 초등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자기의 name value를 높여 가지고, 강의료를 비싸게 불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순회강연을 하는, 진리탐구가 아니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탐구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진지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대로 정직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순회철학자들이 그렇게 인기에 영합해 진리를 빙자해서 지식을 팔아먹으며 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바울을 같은 맥락에 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이 탐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듣는 사람 마음에 듣기 좋게 아첨을 하면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서, 무슨 갈라디아교회나 고린도교회처럼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거나 의심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안전장치로 오늘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사함이나 더러움으로부터 나오는 속임수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 너희를 기쁘게 하거나 너희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의 증거를 어저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 전하는 사람의 증거가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씀 증거자, 전도자, 복음 전파자, 설교자, 어떤 자인가라는 겁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먼저, 아첨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첨하는 말.
앞에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나오는 속임수라는 말도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걸 단어를 달리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의미를 깊게 하기 위해서.
이 맥락에서의 아첨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사업 때문에 고민인 사람을 볼 때는, 문제가 지금 뭡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게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나온 간사함이고 부정함이거든요?
간사함이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 깊이 진짜 내심으로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사업의 성공이고, 자녀의 형통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일단 입으로 하나님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후부터는, 내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장을 내야 된다는 운명으로 접어든 겁니다,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
팔자가 되는 겁니다, 팔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팔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만 되는 팔자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게 간사함이고 동시에 더러움입니다.
왜? 더러운 게 뭐에요, 청결이 어떨 때 없어집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무조건 하얗게 된 게 청결이 아니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만이 계셔야만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게 부정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의 사람을 복음 전도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다, 사업 잘 됐으면, 자식 잘 됐으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사업 잘 될 수 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아! 의롭게 됐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봉사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사업이 잘 될 거다.
이게 아첨하는 겁니다, 이게 아첨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것을 잘한다고 여기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게 다 아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속에 사업이 들어 있어도 안 되고, 자식이 들어 있어도 안 되고, 인생의 성공이 들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끌어들일 때 진짜 들어온 거는, 사업이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고 뱀이 들어온 겁니다.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가지고 뱀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잖아, 돈 못 벌면 Loser야 동창회에 못나가.
이런 게 다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씀.
말씀이라니까 좀 격이 안 맞지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보면, 세상의 말씀이고 마귀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동창회에 어떻게 가? 왜 못 갑니까? 돈 못 벌면 동창회에 못 갑니까?
동창회에 가서 하나님 자랑하면 되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 loser 야 loser, 얼굴 들고 세상에 못 다닌다. 명품 백 하나 없이 어딜 가겠다는 거냐? 이게 다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와 가지고 '돈 많이 번 대, 김 집사! 정신 차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사업이 안 돼? 걱정하지 마, 무엇이든지 사십일 다니엘 기도를 드려봐, 다~ 응답이 돼.
이게 아첨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순회교사들처럼, 이렇게 아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스타강사들, 그들이 해 주는 게 뭐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들을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주는 게 스타강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의 사람들이에요, 탐심의 사람들.

근데 목사님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미 배운 선배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고민이 일어날 상황이 일어난 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감사하다는 것을, 자식이 문제가 생긴 게 감사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끌어들였을 때, 자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실제 자식과 거리가 생기고 갭이 생기니까 고민이 생긴 거거든요, 그건 잘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어떻게 속삭이나 하면, 요렇게 바꾸면 잘 되지 않을까? 유학가면 잘되지 않을까?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사업도 요렇게 해보면 잘되지 않을까? 돈을 빌려서 더 투자를 하면 잘되지 않을까?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었고 하나님 건데 내가 끌어들였구나,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 마음에는 사업 빼내고 하나님 모셔 들이자,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결심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일 모든 일이 안 돼서 걱정인 것은, 안 된다고 보여 지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타산의 달인이 돼 가지고 잘 따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인상 찌푸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팔자가 바뀌어서 이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담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으로 결별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일꾼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립니까? 그래서 인상 씁니까?
돈이 안 벌린다, '어우~ 목사님 나 돈이 안 벌려요, 어후~ 너무 감사해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지만.

진짜 미친 게 뭐냐 하면 돈이 안 벌린다고 인상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려서 인상 쓰면, 목사님은 속으로라도 이래야지요, '잘됐네, 김 집사님, 그렇게 사업 사업 하더니 사업이 안 된다니 정말 잘됐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네, 그러니까 사업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부자 됩시다, 돈 부자 말고, 자식농사 잘 지을 생각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농사 잘 지어서 예수님 하나님 부자 됩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고 뭐고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고, 그 일에 대해서 내 행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귀가 똬리를 틀고 앉아서 나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행동하고 또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남의 일처럼 생각하냐? 남의 일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만이 내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기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들과 더 친해지느냐, 어떻게 그분들로 더 부자가 되느냐, 하늘부자가 되느냐, 이게 내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사업, 내 자식, 뭐 내 인생 이런 것들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시켰음으로 할 수 없이 하는듯한 마음으로, 잠깐씩 시킬 때마다 한 마디씩 거들고, 손 한 번씩 대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요셉이 총리될 준비 하나도 안 해도 총리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지요.

더 이상, 뱀이 똬리를 틀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 찬양과 고무적인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아첨꾼의 말들에 대해서, 마음의 길을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생활화에요.
내 마음에 끌어들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함을 통해, 모든 아첨꾼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의도한 아첨도 있고 진심어린 염려로 주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또한 아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부터, 십자가를 생활함으로부터 빠져 나와, 진짜 하나님과의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